

점오도깨비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친다. 첫째, 미세한 틱 단위에서 반 틱 혹은 0.5포인트를 빠르게 수확하려는 초단기 매매 성향. 둘째, 누구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동성의 틈에 맞춰 움직이는 귀신 같은 감각. 국내 파생시장에서 특히 코스피200 선물과 미니상품, 야간 CME 연동 흐름을 애용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이 별칭은 오래됐다. 강남 일대 사무실로 모여 트레이딩 룸을 꾸린 소수 정예 팀을 두고 강남도깨비라 부르기도 하고, 이를 변형해 강남점오도깨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름이야 어떻든, 본질은 하나다. 시장의 계절성이 만들어내는 반복 패턴과 그 날의 체결 흐름을 촘촘히 읽어 내고, 손실은 얇게, 승률은 확률적으로 쌓아 올린다.

여기서는 계절성과 이벤트의 달력, 거래소 미시구조의 변주, 통화와 금리 환경의 국면 사이클에 맞춘 시즌별 접근법을 정리한다. 단일한 룰북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장면을 바탕으로 상황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욕심을 줄이고 진입 빈도를 조정하는 법, 호가 잔량과 체결 연쇄를 해석하는 기준, 일간 변동성의 상하한을 가능하는 체크포인트까지 담았다.

## 점오의 구조: 왜 0.5가 의미를 갖는가

점오 매매는 단순히 작은 수익을 쌓는 전략이 아니다. 미시구조상 특정 가격대에서 체결 관성이 생기고, 그 관성이 0.5포인트 정도의 반동을 자주 만들어낼 때만 통한다. 실제로 장중에 반복 관측되는 현상 몇 가지가 핵심 근거가 된다. 첫째, 선물 베이스스가 현물 우위 혹은 선물 우위로 살짝 벌어질 때 프로그램 매수/매도가 순간적으로 유입되며, 그때 전자적 유동성 공급자들이 호가를 한 틱 밀거나 당긴다. 둘째, 옵션 헤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 특히 장 시작 5분과 마감 10분 전후에는 단기 체결 속도가 과열되어 반사 탄력이 커진다. 셋째, 글로벌 선물 연동 시 야간 흐름에서 베타가 크게 확장됐다가, 국내 장 개시와 함께 알파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미세 반동이 더 빈번해진다.

결국 점오도깨비의 성패는 픽오프 당하지 않는 위치 선정과 빠른 청산 루틴에 달린다. 체결 하나하나가 무의미해 보이지만, 200회 매매 중 10회의 급격한 반대 체결이 계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시즌에 따라 진입 간격과 목표폭, 베타 노출 한도를 다르게 맞춰야 한다.

## 분기별 리듬: 선물 만기와 롤오버의 장단

선물과 옵션 만기는 3, 6, 9, 12월에 집중된다. 이 네 달의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포지션 쓸림과 베이스스 조정이 잦아, 점오 매매의 기대값이 달라진다.

3월은 연초 흐름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외국인 선호 섹터가 뚜렷해진 상태에서 맞이한다. 베이스스가 과열되면 스프레드가 순간적으로 벌어졌다가 닫히는 일이 많아, 체결 속도는 빠르지만 가짜 브레이크가 잦다. 이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첫 반동만 취하고 즉시 청산하는 편이 낫다. 경험상 3월 첫째 주에는 스캘핑의 평균 보유 시간이 8초 이내로 짧아야 했다. 그보다 길어지면 체결팀의 역공에 휩쓸린다.

6월은 배당락 이전에 배당 플레이와 환율 재조정이 맞물린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의 상쇄가 빈번해, 호가 잔량 대비 체결이 거꾸로 흐르는 장면이 많다. 이때 강한 잔량을 보고 진입하는 단순 로직은 수익률이 급감한다. 호가 잔량 3만 대비 체결 1만이 연속 3틱에서 발생할 때, 실제 버퍼는 얇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 방향 점오만 노리는 식의 역발상 모듈이 필요했다.

9월은 휴가 시즌 이후 복귀와 함께 글로벌 이벤트가 잦고, 미국의 연준 회의와 중국의 경기지표가 엮인다. 야간 변동성이 커진 뒤 아침에 피로가 남아 갭으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다. 갭 이후 첫 10분은 보통 방향성이 모호하고 매크로 헤지가 우세하다. 이 구간에서 점오는 오히려 빈도 제한이 필요하다. 1시간 정도 지나 유동성이 두터워진 뒤, VWAP 복귀 움직임에서 반대 틱을 수확하는 쪽이 안정적이었다.

12월은 연말 결산과 수급 마감에 겹친다. 포지션 축소로 인한 얇은 유동성, 동시에 옵션 만기일에는 확대된 베가와 감마 관리가 충돌한다. 들쭉날쭉한 파동 속에서도 뭉텅이 체결이 지나간 자리의 되돌림 빈도가 높아진다. 이 시기엔 목표폭을 0.5로 고정하기보다, 0.3에서 0.8 사이 가변으로 운용하는 편이 체감 성과가 좋았다. 계정별로는 위탁사 수수료 조건과 리베이트 구조에 따라 최적 목표폭이 갈린다. 강남도깨비 팀처럼 다량 체결에 우대 수수료를 받는 곳이라면 0.3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 월중 패턴: 옵션 만기 주와 이벤트 한가운데

월중으로 좁히면, 옵션 만기 주는 월요일과 수요일이 특히 민감하다. 월요일은 주말 글로벌 이슈가 반영되고, 수요일에는 감마 관리가 적극화된다. 수요일 오전 10시 전후로 옵션 델타 헤지가 몰릴 때는 꺾오가 아닌 1.0을 목표로 짧게 잡는 편이 확률이 높았다. 실제 체감상 델타 중립 포지션의 재조정이 한 번에 2틱을 밀어붙이는 일이 자주 나왔고, 그 바로 다음 틱에서 얇은 반동이 나오기 전에 털어야 했다. 반대로 만기 당일에는 열린 호가 사이로 빈 공간이 생기며, 그 빈 공간을 노리는 픽오프 시도가 잦다. 이때는 지정가 진입을 피하고, 시장가로 들어가 즉시 절반청산을 붙이는 분할 루틴이 먹혔다.

FOMC 주간, 한국은행 금통위, 옵션 만기, MSCI 리밸런싱, 쿼드러플 위칭이 겹치는 주에는 로직을 사실상 두 개로 쪼갠다. 오전에는 실수요성 체결을 바탕으로 좁게, 오후에는 헤지성 물량과 알고의 속도를 이용해 넓게. 중간 시간대인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는 대체로 거래가 건조해 꺾오의 기대값이 떨어진다. 강남꺾오도깨비로 알려진 몇 팀은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휴식 구간으로 정해, 피로 누적을 막고, 알고의 파라미터를 점검한다.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알고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요일과 시간대: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오후의 간격

월요일 아침은 꺾오에게 가장 유혹적인 시간대다. 야간 흐름이 남긴 갭, 그리고 주말 내내 쌓인 포지션 조정 욕구가 겹치면서 첫 30분의 체결 탄성이 크다. 유혹적일수록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살아남는다. 능동적으로 두 번 진입하기보다, 한 번의 찬스를 길게 잡는 편이 낫다. 평균 체결 스프레드가 평일 대비 10에서 30퍼센트 넓어지므로, 슬리피지 한도를 평소보다 0.1에서 0.2포인트 여유 있게 설정한다.

금요일 오후는 반대로 유동성이 이탈한다. 시장이 잠잠해 보이더라도, 얇은 호가 사이로 큰 체결 한 번에 모든 손익이 뒤집힌다. 금요일 2시 이후에는 매매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스탑 폭은 0.2 줄이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켜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자세가 좋다. 주간 손익이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면, 마지막 1시간은 완전 관망하는 편이 결국 연간 성과를 지켜준다.

## 계절성: 봄철 낙관, 여름의 얇은 파도, 가을의 재정렬, 겨울의 수축

봄에는 실적 기대와 정책 낙관이 섞여 장이 선호 섹터를 밀어 올리곤 한다. 확신이 생긴 군중이 호가를 쫓을 때, 되돌림은 얇다. 이 시기 꺾오는 일중 조정의 초반보다 후반을 노리는 편이 안정적이다. 가령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첫 조정이 1.2포인트 나왔다면, 두 번째 조정에서 0.5를 노리기보다 0.3을 두 번 수확하는 편이 승률이 높았다.

여름은 휴가와 실적 발표가 겹친다. 종종 시장은 한나절 내내 보험권을 맴돈다. 좁은 박스 속에서 꺾오는 빛난다. 다만 호가가 얇아 순간 가속화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북적이는 대형주 현물 거래대금과 선물 체결 속도의 관계를 참고하면 좋다. 대형주 현물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는데, 선물 체결 속도만 빠르면 알고 비중이 높다는 신호다. 알고 상대로 꺾오를 반복하려면 진입을 시장가가 아닌 대기 지정가로, 그리고 포지션 크기를 70퍼센트 수준으로 낮춰야 픽오프 위험을 줄인다.

가을은 방향성이 한번 뒤집히는 시기다. 상반기 테마가 식고, 새 내년 스토리가 등장한다. 연속적인 추세 틱의 끝에서 반동을 노리는 [강남도깨비](#) 시도는 성공 확률이 급락한다. 추세 막바지에 노리는 꺾오는 스탑이 한 틱 안에서 잘리지 않고, 종종 세 틱을 훌쩍 손실로 인식시킨다. 여기서는 추세 중간 구간에서 VWAP 상하단 근처의 이탈 후 복귀를 노리는 방식이 유효했다. 스탑까지 거리 0.6, 목표 0.5의 비대칭 구조가 심리적 부담을 주지만, 관성상 복귀 빈도가 더 높았다.

Hot girls who look good with denim on weekend nights in Apgujeong



겨울은 거래소 휴장일이 많고, 연휴 전후에 유동성 공백이 생긴다. 공백은 종종 선행지수선물이 끌고 가는데, 빈호가 많아 미니상품에서 일순간 1.0 이상 미끄러진다. 이 시기에는 미니 대신 메인 선물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 낫다. 미니로 꺾오를 시도하면 주문이 일부 체결만 되고 나머지가 공중에 떠 버리는 일이 잦다. 체결이 갈라지면 평균단가가 나빠지고, 청산도 지연된다.

### 변동성 국면별 매개변수: VRP와 일중 ATR

시장의 변동성은 한 가지 수치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일중 ATR과 옵션 내재변동성, 그리고 VRP(내재변동성 대비 실현변동성의 괴리)를 함께 본다. 내재가 실현을 과도하게 상회하면 델타 헤지가 과도해지고, 미세 반동이 늘어난다. 반대로 실현이 내재를 추월하면 추세성이 강해져, 반동이 얇거나 나오지 않는다. 꺾오도깨비가 살아나는 구간은 대체로 VRP가 1에서 2포인트 정도로 양의 값을 유지하면서, 일중 ATR이 전일 대비 15에서 25퍼센트 축소되는 날이다. 몸통은 작지만 꼬리가 자주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때는 목표폭 0.5, 스탱 0.6, 체결 실패시 슬리피지 허용 0.1, 평균 보유 시간 6에서 12초 정도가 적절했다. 반대로 VRP가 음수로 내려가고, 일중 ATR이 30퍼센트 이상 급증하는 날에는 목표폭을 0.7에서 1.0으로 넓히되, 횡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편이 성과를 지킨다.

### 미시구조: 호가 잔량과 체결 연쇄를 읽는 법

꺾오 매매의 현장은 호가창과 체결창이며, 남들은 장중 뉴스와 차트에 몰두하더라도 우리는 숫자의 리듬을 본다. 단순 잔량의 크기가 아니라 잔량이 줄어드는 속도, 그리고 줄어드는 와중에 체결이 어디에 쌓이는지를 본다. 예컨대 매수 2호가 15,000, 3호가 21,000, 매도 1호가 11,000일 때, 매도 1호가 체결이 8,000에서 멈추고, 곧장 2호가로 체결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저항성 유동성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매수로 꺾오를 노리기보다, 1틱 밑에서 잡아 반동 0.5를 바로 털어내야 한다.

이동평균이나 피벗 같은 클래식 지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호 발생의 시간 지연을 감안해야 한다. 1분 봉 9EMA는 꺾오 관점에서 지연이 작고, 체결 연쇄와 함께 보면 힌트가 된다. EMA 위에서 체결량이 감소하는데, 호가 잔량이 늘어나는 모습은 알고의 일시적 후퇴다. 거기서 0.5 반동을 한 번에 취할 확률이 높다.

### 리스크 관리: 빨셈의 미학

꺾오의 매력은 수익이 조금씩 쌓인다는 안정감이 아니라, 포지션이 얇아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적은 데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손실의 분포를 가늘게 만들어야 한다. 크게 먹는 날이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날을 만드는 쪽으로 사고를 바꾸면 의사결정이 단순해진다. 강남도깨비 같은 팀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암묵적으로 공유한다.

- 하루에 셋 이상의 연속 손실이 나오면,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트레이딩을 중단한다.
- 첫 체결이 슬리피지 0.2 이상이면, 같은 방향으로 재진입하지 않는다.

- 평균 보유 시간이 15초를 넘기 시작하면, 무조건 목표폭을 줄이고 청산 우선순위를 높인다.
- 이벤트 전후 10분에는, 스탱을 당기거나 포지션 크기를 50퍼센트로 낮춘다.

이 네 가지는 간단하지만, 심리적 저항이 크다. 방금 손실을 본 뒤에는 복구하려는 충동이 강해지고, 슬리피지가 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좋은 신호가 자주 뜨는 날에는 보유 시간을 늘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이런 순간을 가로막는 것이 규칙이고, 규칙이 작동하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체결 시점, 잔량 변화, 체결량 비율, 슬리피지, 보유 시간, 청산 사유를 매매별로 남겨야 한다. 200건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인다. 가령 연속 손실이 벌어질 때는 보유 시간이 평균보다 길어졌다는 식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다음 날 같은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면 된다.

## 팀 운영과 루틴: 현장에서 통하는 소통 방식

점오 매매는 혼자보다 팀이 유리할 때가 많다. 서로 다른 화면을 보고 다른 시장을 중계해 줘야 미시 구조의 맥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있던 팀에서는 선물 메인, 미니, 주요 대형주 현물, 환율, CME 야간선물, 옵션 체결 강도, 이 여섯 화면을 두 사람이 나눠 맡았다. 강남점오도깨비로 불리던 한 팀은 통신 지연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와 가까운 데이터센터 라우팅을 개선해, 평균 체결 지연을 3에서 4밀리초 줄였다. 실제 손익에는 과장된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픽오프 빈도가 체감상 줄었고, 보호청산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소통은 짧고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물 약해, 선물만 반등, 매도 잔량 숨김” 같은 문장이 2초 안에 오간다. 장중 장황한 설명은 독이다. 데이터는 장 마감 후 충분히 분석하면 된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두 번의 짧은 리캡을 통해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한다. 이때는 각자 승리와 패배의 감정 서사를 배제하고, 숫자와 사실만 공유한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점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개인 트레이더를 위한 장비와 세팅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지연과 오작동만큼은 용납하면 안 된다. 최소 듀얼 회선, 서로 다른 통신사 회선 백업, UPS 전원, 그리고 주문 오류 방지 장치가 필수다. 마우스 클릭 하나로 진입과 청산을 모두 처리하는 매크로는 편리하지만 위험하다. 매크로에는 필수 보호 로직, 예를 들어 미체결 잔량 60퍼센트 이상일 때 재발주 금지, 평균단가 악화 0.2 이상시 강제 전량 청산 같은 세이프가드를 붙여야 한다. 어떤 플랫폼이든 호가창과 체결창의 폰트를 키우고, 체결량 색상 대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개선된다. 이 작은 조정이 매일 몇 틱을 지켜 준다.

모니터 배치는 단순할수록 좋다. 핵심 두 화면은 시야의 가운데, 자주 보지 않는 참고 지표는 주변으로 밀어낸다. 시선 이동 거리가 반응 시간을 좌우한다. 피로 누적을 줄이기 위한 50분 작업, 10분 휴식 루틴을 권한다. 휴식 시간에는 SNS나 뉴스 대신, 그냥 눈을 감고 체결음만 듣는 편이 좋다. 소음 같던 소리가 갑자기 리듬으로 들리는 날이 있다. 그날은 점오의 날이다.

## 케이스 스터디: 만기 주 수요일 오전, 한 시간의 전술

작년 9월 만기 주 수요일, 오전 9시 5분에 선물은 갭상승 후 눌림이 시작됐다. 옵션 델타 헤지로 보이는 매도가 선물 쪽에 먼저 유입되었고, 현물은 뒤늦게 쫓아왔다. 9시 12분, 매도 1호가 체결량이 급증하면서 0.8포인트를 밀었다. 이때 점오 진입을 시도했다면 연속 두 번의 스탱 손실을 보기 쉬운 구간이다. 실제로 우리는 관망을 택했다. 9시 16분, 밀림이 멈춘 뒤 매수 2호가 잔량이 갑자기 4만을 넘겼고, 체결은 머뭇거렸다. 여기서 역으로 매도로 0.5를 노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잔량의 갑작스런 비대화는 알고의 미끼일 가능성이 높았고, 체결이 따라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7초 만에 반대 체결이 들어오며 0.5 수익. 그 다음 신호에서는 반대로 매수로 들어가 0.3만 먹고 나왔다. 손익은 크지 않았지만, 이 한 시간 동안 무리한 추격을 피하고, 허수 잔량을 역이용한 것이 승부처였다.

## 초심자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

처음 점오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한 파라미터보다 다음 다섯 가지가 더 중요하다.



## Cities With Best Nightlife

- 하루에 40회 이상 매매하지 않는다.
- 보유 시간이 10초를 넘으면, 이유를 메모하고 즉시 청산한다.
- 호가잔량이 갑자기 두 배로 늘면, 진입을 보류하고 체결이 따라오는지 먼저 확인한다.
- 금리나 환율이 급변하는 이벤트 10분 전후로는 진입하지 않는다.
- 첫 손실 후 바로 복구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계좌를 지켜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데이터다. 2주만 성실히 적으면, 어떤 시간대에 자신이 약한지, 어떤 체결 패턴에 당하는지 또렷해진다. 남의 룰북을 베끼기보다, 자신의 패턴을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내공이다.

## 강남도깨비의 시선: 현장 감각과 기술의 타협

강남도깨비라 불리는 팀들은 결국 기술과 감각의 타협점에서 살아남았다. 초저지연 시스템과 정교한 알고리즘도 필요하지만, 어느 날은 그냥 한 호가 너머의 체결 기색을 읽는 눈이 이긴다. 미묘한 침묵, 갑작스러운 체결 정지, 환율 틱과 선물 틱의 타이밍 엇갈림. 이런 것이 꺾음을 부른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손실이 연속되는 날이 있다. 그날은 장의 리듬이 자신과 맞지 않는 날이다. 이런 날을 알아차리고 접을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시즌을 통과하는 기술이다.

기술은 매일 업그레이드된다. 시장의 반응 역시 변한다. 예전에는 잘 먹히던 잔량 페이크가 요즘은 금방 들통나고, 반대로 체결 속도의 페이크가 늘었다. 예전에 썼던 파라미터를 다시 쓰면 성과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시즌별 전략은 결국 변화의 속도에 맞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일이다. 봄에는 낙관을 경계하고, 여름에는 얇은 파도를 타고, 가을에는 재정렬의 칼날을 피하고, 겨울에는 수축의 공백을 건넌다. 그 사이사이에 만기와 이벤트, VRP와 ATR, 호가와 체결의 리듬을 노트에 새긴다.

꺾오도깨비는 화려하지 않다. 매일 작은 차이를 쌓아 계좌 곡선을 흔들림 적게 밀어 올린다. 하루가 끝나면 남는 것은 숫자 몇 줄과 초 단위의 기억, 그리고 다시 내일을 위한 작은 수정이다. 계절이 바뀌면 리듬도 바뀐다. 리듬이 바뀌면 규칙도 고쳐야 한다. 시기별 접근법의 본질은 그 단순한 사실을 잊지 않는 데 있다.